

[Counting Stars]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 ① 유영국 작가

June 30, 2022 | 이정훈 기자

Page 1 of 12

한국 미술은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나날이 높아지는 미술의 인기 속 불현듯 떠오르는 질문 하나. '과연 우리는 한국 미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 디자인프레스는 지난 세기 한국 미술에 굵직한 궤적을 남긴 채 별이 된 이들을 돌이켜 본다. 유영국, 김환기, 백남준, 권진규, 문신 등 오늘날 한국 미술 인기에 바탕이 된 20세기 근현대미술가들의 행보를 소개하며 이들이 남긴 미술의 가치를 조명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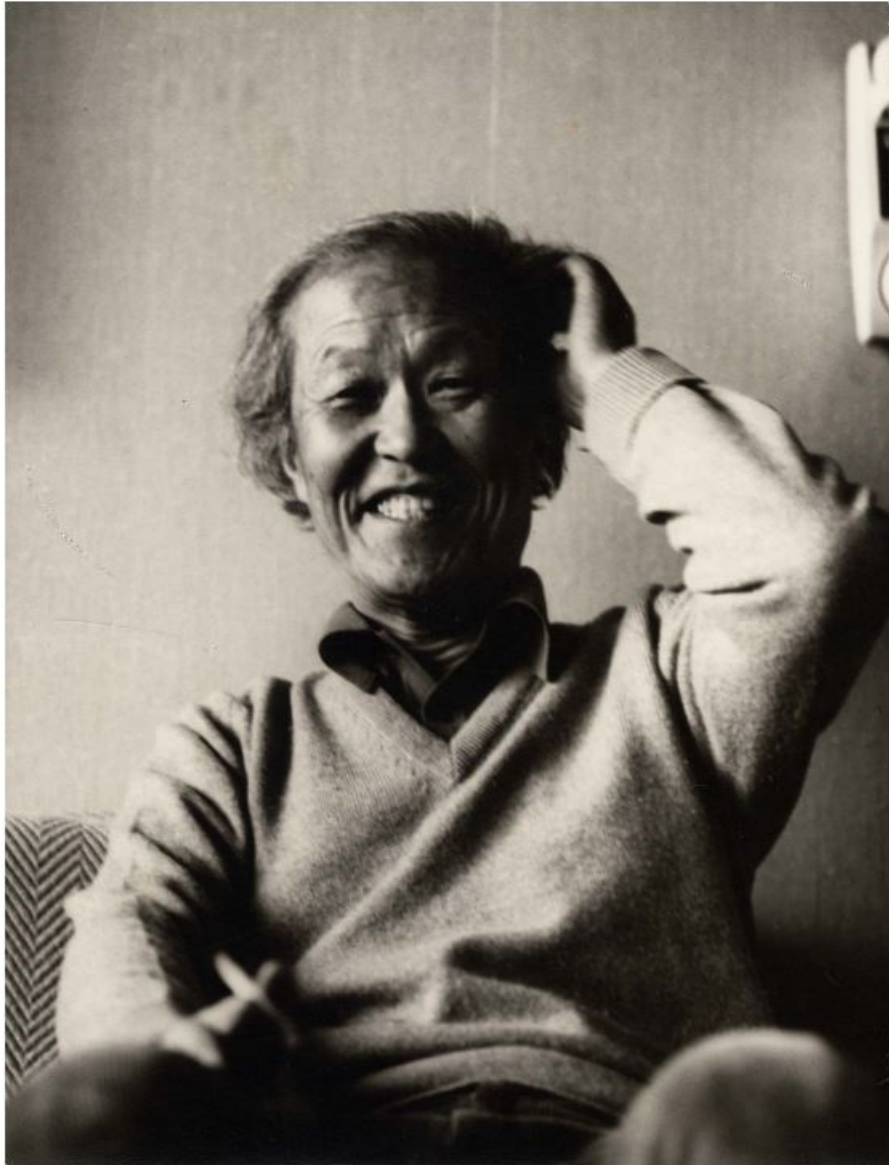
아버지께서는 과묵하시고 말씀이 적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유행했던 탱고를 잘 추기로 유명하셨어요.
무뚝뚝하셨지만 어머니에게만큼은 직접 노래를 불러주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유진 <유영국 문화 재단> 이사장

”

도쿄의 모던보이 유영국(1916~2002)

유영국은 모던보이다. 그는 영국산 정장을 즐겨 입었고, 탱고를 춤 줄 알았으며 노래를 멋들어지게 부를 줄 알았다. 20세기 초에 태어나 시대에 획을 그은 한국 미술가들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술가로서 가난과 싸워가며 처절하게 화업을 이룬 이 그리고 더 넓은 세계와 문화를 마주하며 예술적 자유를 추구한 이. 유영국은 후자에 가깝다.



유영국 작가 포토편, 1970년대,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gt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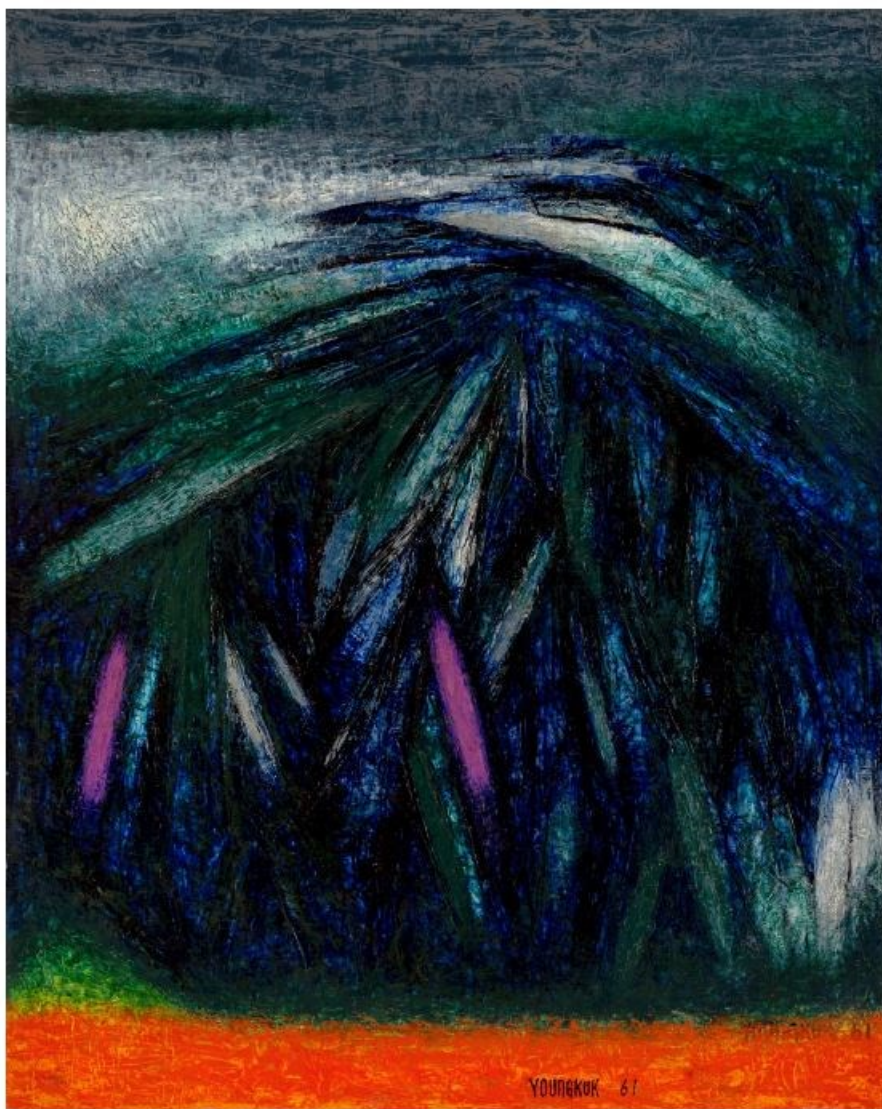
1916년 경상북도(당시 강원도) 울진에서 태어난 그는 일찍이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 도쿄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일본 유학은 지식인에게 드피쳐이자 전형적인 수완(修學) 과정 중 하나였다. 하지만 누구나 일본으로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건 아니다. 유학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자금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유영국 집안은 종조부 때부터 윤후했다. 성공한 사업가 가문으로 울진 일대의 땅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 부유한 가정 환경 덕분에 그는 일제 강점기임에도 불구하고 모자람 없이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다. 1931년 울진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한 유영국은 이듬해 경성계2고등보통학교로 진학했다. 학교에서도 두터운 신망을 얻을 정도로 통성이 좋았다. 하지만 졸업을 한 해 앞두고 그는 불면 자퇴했다. 일본인 교사가 친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했는데 그 요구를 거부했던 것. 이를 계기로 그는 부당한 체벌을 받았다. 부조리함이 자연스러운 시대. 하지만 그 안에서 드 스승과 제자의 정상적인 관계와 건설적인 교류는 존재했다. 설령 그 스승이 일본인이라고 해도 말이다.



유영국은 경성계2고등보통학교 미술 교사인 사토 루니로부터 예술을 향한 관심과 예술가의 삶을 배웠다.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 유학을 앞두고 있던 그에게 사토 루니는 도쿄의 문화학원을 소개했다. 1921년 니시무라 이사쿠가 설립한 도쿄 문화학원은 당대 엘리트 중심의 교육 기관과 정반대 지점에 서 있는 곳이었다. 틀에 박힌 사고와 이론을 반복해 익히기 보다 자유롭고 독창적인 창작 분위기를 중시했다.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도 없었다. 유영국은 문화학원의 자유로운 학풍에 매료됐다. 당시 일본 미술계에서는 유럽으로부터 전해진 초현실주의와 추상미술 등 전위 미술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추상 미술은 1935년 유영국이 진학한 문화학원 유헌과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유영국은 문화학원에서 일본 추상 미술 운동을 이끌던 쿠라이 마사나리, 하세가와 사부로 등과 교류하며 그들이 주축인 자유미술가협회, 독립미술협회 그리고 N.B.G(Neo Beaux-Arts Group) 등 전위 미술 운동에 참여했다. 이들 협회에서 주최한 협회전에서 수상하며 그는 재야 미술계에서 주목 받는 작가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

점, 선, 면, 형, 색으로부터

1943년 모더니즘의 최전선에서 활동한 유영국에게도 전운의 그림자가 짙어졌다. 그는 고향인 울진으로 돌아왔다. 해방 전후로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그림을 그리는 대신 바다로 나섰다. 어선을 몰고 물고기를 잡아 팔면서 가족을 부양했다. 이 시기 뱃일을 하며 마주한 울진의 산과 바다 그리고 노을은 이후 그의 추상 미술 전개에 중요한 모티프가 되었다. 유영국은 자연환경으로부터 얻은 이미지를 점, 선, 명, 형, 색 등 회화의 기본 조형 요소로 표현했다.



《Work》, 1961, Oil on canvas, 101.5 x 81cm,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t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Work>, 1962, Oil on canvas, 81.5 x 101cm,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t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

산은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유영국

”



<Work>, 1967, Oil on canvas, 162 x 130cm,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t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1964년 비교적 늦은 나이에 첫 개인전을 가진 유영국은 귀국 이후 김환기, 이중섭 등 일본 유학 동료들과 함께 이끌었던 신사실파, 모던아트협회, 현대작가초대전, 신상회 등 예술 운동을 그만두고 개인 작품에 몰입한다. 1960~70년대는 유영국의 추상 실험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던 시기였다. 산, 바다, 노을, 계곡 등 그가 울진에서 마주했던 자연 속 대상은 주로 선과 면 그리고 색이라는 조형 언어로 간결하면서도 본질만이 남아있는 추상 회화로 표현되었다. 무엇보다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대상의 추상적 표현을 넘어서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랑을 바탕으로 색채 간의 조화와 깊이감을 화면 안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자신만의 추상 미학을 정립하기 위해 격렬하게 탐구한 시기임을 반증한다.



(왼쪽) <Work>, 1969, Oil on canvas, 136 x 136cm,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t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오른쪽) <환희(원계)>, 1971, Oil on canvas, 137 x 137cm,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t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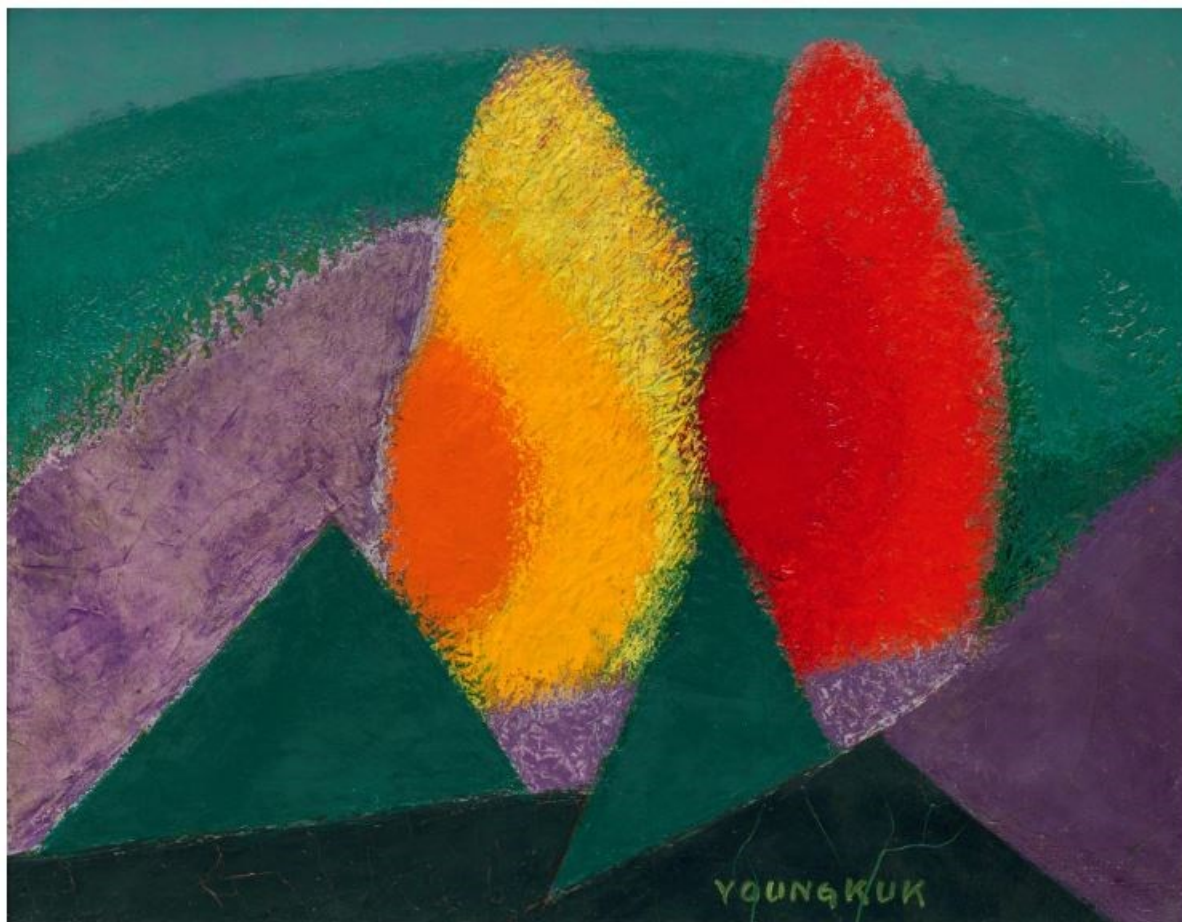
산에는 뭐든지 있다. 봉우리의 삼각형, 능선의 곡선, 원근의 단면, 다채로운 색...

유영국

”



〈Mountain〉, 1974, Oil on canvas, 135 x 135cm, Collection of Daegu Art Museum,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t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Work〉, 1977, Oil on canvas, 32 x 41cm,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t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자연으로부터 영감을 얻어 독자적 추상 세계를 구축하는 시도는 70년대 후반을 지나 90년대까지 이어졌다. 삼원색을 중심으로 강렬하고 선명한 색채를 강조했던 70년대 초기와는 다르게 부드럽고 얇게 물감을 쌓아 올리며 자연스러운 마티에르를 시도했다. 그림의 대상도 달라졌다. 웅장한 산맥과 힘차게 쏟아지는 폭포와 거친 바다 대신 잔잔한 호수와 나무, 해와 달을 화면에 담았다. 자연의 서정성을 표현했다. 시간이 흐르고 쌓이면서 그의 추상 세계 또한 완숙해졌다. 추상의 완성에 이른 예순의 나이에도 유영국은 회화의 기초를 더욱 다듬고 공부하겠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화업은 심장병이라는 예기치 못한 병고를 맞이한다. 77년부터 그는 심장박동기를 달고 병원을 오가며 힘겨운 투병 생활을 시작한다. 그러는 와중에도 유영국은 그림을 놓지 않았다. 자신의 힘이 닿을 때까지 계속 그리고 또 그렸다. 자신을 둘러싼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그가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곳은 어쩌면 바로 캔버스 앞이 아니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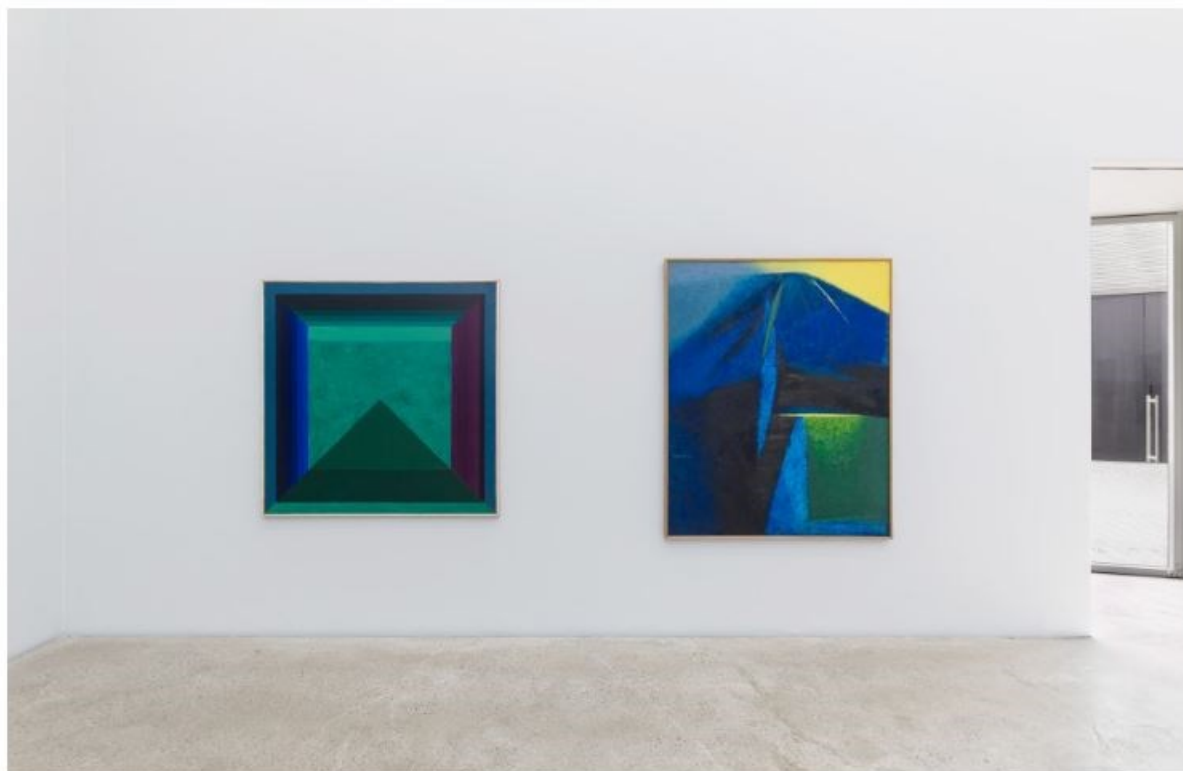


〈Work〉, 1992, Oil on canvas, 60 x 73cm, Courtesy of Yoo Youngkuk Art Foundation,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여전히 유효한 유영국의 색



국제갤러리 2관(K2) 유영국 20주기 기념전 <Colors of Yoo Youngkuk> 설치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국제갤러리 3관(K3) 유영국 20주기 기념전 <Colors of Yoo Youngkuk> 설치전경 (이미지 제공: 국제갤러리)

한국 추상 미술의 선구자로 불리는 유영국 작가의 20주기 기념전 <Colors of Yoo Youngkuk>이 국제갤러리 K1, K2, K3 전관에서 오는 8월 21일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2018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작가의 두 번째 개인전으로 6, 70년대 초기작부터 90년대 후기 작까지 총망라하여 선보인다. 회화 68점과 드로잉 21점 그리고 1942년 작가의 활동 기록이 담긴 아카이브 자료 등 유영국이 이룬 화업을 다양한 시각으로 돌아본다. 세 개의 전시장은 작가의 시기별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K1에서는 50년대부터 60년대 초중반까지의 초기 회화 작업을, K2에서는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추상의 완성을 이룩한 과정에 놓인 회화 작업과 캔버스 위에 옮기기 전에 작가가 기록한 다양한 드로잉과 스케치를 볼 수 있다. K3에서는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원색에서 나아가 초록, 파랑, 군청 등 변주된 색상을 활용해 자신이 마주한 자연 세계를 표현한 작품을 볼 수 있다. 작가 유영국의 화업을 보여주는 작품과 더불어 각 전시장 입구는 해당 시기 대표작에서 강조된 색과 동일한 색상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번 전시의 숨은 모미 중 하나이다. 오늘날 한국 미술이 이룩한 성장과 가능성에는 자신만의 독자적 예술 양식을 탐구해 온 예술가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서려 있다. 단순히 보기 좋은 그림을 떠나서 예술가의 고뇌와 태도가 녹아있는 작품이야말로 시대를 넘어 올림을 전한다. 한국 추상 미술이라는 궤도를 그리고 떠난 유영국을 만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이다.